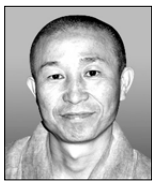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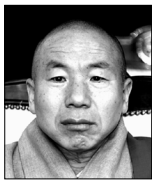


일 주 문



실상사 후불탱화 봉안식
도법 남원 실상사 회주 스님은 10월 25일 실상사에서 약사전 후불탱화 봉안식을 거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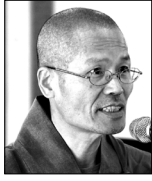
해인강원 후원회 법회
향적 합천 해인사 주지 스님은 11월 21~22일 해인사 대웅전에서 '해인강원 후원회 법회'를 봉행한다.



봉은사 동지선편 실시
원명 서울 봉은사 주지 스님은 동지법회기금 마련을 위한 동지선편을 11월 1~22일 봉은사 일대에서 실시한다.



봉원사 주지 진산식
선암 서울 봉원사 주지 스님은 11월 5일 오전 11시 봉원사에서 제42대 주지 진산식을 개최한다.



길상사 수능기도 천도재
덕은 서울 길상사 주지 스님은 11월 11일 길상사에서 수능기도 천도재를 진행했다.



성 인식개선 교육 개최
희유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관장은 10월 28일 '성 인식 개선 및 건강강화 성 문화 조성 교육'을 실시했다.

법보신문 '독립언론 10주년' 법회

10월 27일, 세종문화회관서... 300여 명 참석



법보신문(대표 남배현)은 10월 27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독립언론 출범 10주년을 기념하는 법회를 개최했다.

남배현 법보신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한부 한부의 구독료를 바탕으로 밝히는 인등으로 받들어 오기에 법보신문은 정법을 수호하고 흥포하는 도량으로서 항상 겸손하고 겸양한 마음으로 정론의 길을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청정심으로 민생치안에 이바지”

수원남부경찰서에 불자회 · 경승위 창립한 유진형 경찰서장



10월 27일 창립법회 봉행
불자회 30여 명으로 구성
경승위원 송탁 스님 등 5인

“수원남부경찰서의 24년 역사 동안 불자회나 경승위원회가 없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불자로서 평소 포교에 큰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불자회 창립이라는 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유진형 수원남부경찰서장은 수원남부경찰서불자회 및 경승위원회를 발족하고, 10월 27일 창립법회를 열었다.

“작년 12월 부임한 후부터 졸곧 생각해온 일입니다. 그러던 중 조계종 호법부장 세영 스님과 아리담문화원 송탁 스님과 인연을 맺게 돼 수원남부경찰서 경승위원을 맡아 줄 것을 부탁드렸고, 흔쾌히 승낙해주신 덕분에 경승위원회를 발족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10월 13일 수원남부경찰서 경승위원으로 송탁 스님, 세영 스님, 대현 스님, 보선 스님 등 5인이 공식 위촉됐다. 불자회는 30여 명 회원으로 구성된다.

원들과 함께 경승위원 스님들 사찰 순례도 계획하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찰대학 재학 중 불교학생회 활동도 활발히 참여했다는 유 서장은 1983년 신록사에서 열린 수련회에 참가하며 계를 받았다.

불자이신 어머니 영향을 받아 어린 시절부터 절에 다니던 것이 인연이 됐다.



조계종, 27일 10·27법난 35주년 기념법회 봉행

1600년 한국 불교 역사 중 최대 탄압사건이라 불리는 '10·27법난'이 발생한지 35년이 지났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은 10월 27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10·27법난 제3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난 피해자 및 국가권력 희생자에 대한 묵념, 사회국장 각평 스님의 경과보고,

유진형 서장은 1982년 경남 진주 대이고등학교를 졸업, 1986년 경찰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 구로경찰서장 등을 역임할 때도 포교 활동에 앞장섰다. 부처님오신날에 관내에서 초파일법회를 주최하는가 하면, 연등도 직접 달았다.

유 서장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며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있다”며 “권력과 탐욕을 내려놓고 청정한 마음으로 민생치안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7일 수원남부경찰서 내 강당에서 열린 창립법회에는 송탁 스님, 마가 스님 등 1백 20여 명이 참석했다.

박아름 기자

본지, 진각종 네팔 돕기 성금 3백만원 기탁

현대불교신문사(대표 해월 스님)는 10월 28일 서울 하월곡동 진각문화전승원서 한국불교법사대학 학장 지일 스님과 학인 일동이 네팔지진피해 돕기 구호 기금에 써달라고 기탁한 3백만원을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에게 전달했다.

회정 통리원장은 이 자리에서 “진각종은 지진피해 당시부터 중단차원에서 네팔 현지 포교사와 함께 구호활동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에 기탁 받은 성금은 현지 네팔 JGO센터에 전달해 피해복구 활동에 사용

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불교신문사를 대표해 전달식에 참석한 서준건 관리부장은 “적은 액수이지만 지진피해로 슬픔에 잠긴 네팔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데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배석한 너빈 바르라차르야 진각종 JGO네팔센터장도 “네팔은 지난해 일어난 대규모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도 복구가 안된 곳이 많다”며 “앞으로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집을 잃은 이들이 추



위에 얼마나 고통스러워 할지 걱정이야. 이번 성금을 그들을 위해 담요와 의류 등을 나눠주는 데 쓸 것이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성금을 후원해 주신 한국불교법사대학측에 감사드립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김주일 기자

홍법사, 대광명전 불사 회향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가 개산 12주년을 맞아 대광명전 불사 회향을 의미하는 삼존불 점안식을 봉행했다.

10월 25일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진행된 삼존불 점안식은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의 증명으로 거행됐으며 법회는 내민 축사 및 동림 어린이 합창단 축하공연, 감사패 및 공로패 전달, 법어 순서로 진행됐다.

한성민 기자

해인사 원당암, 중앙절 법회 열어



해인사 원당암은 10월 21일 중앙절(음 9월 9일)을 맞아 해인사 방장 월각 스님을 모시고 법회를 개최했다.

월각 스님은 “자신의 참 나인 본심을 밝혀, 윤회의 바깥경계에 도달함이 없는 중도의 삶을 살길 바란다”며 “본성의 생활로 주인공의 마음자리를 깨달아 불국토를 이루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은정재단, 24일 나란다축제 시상식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 이하 은정재단)은 10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공연장에서 제14회 은정 장학금 전달식과 제7회 나란다축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제7회 나란다축제에서 부문별 수상자와 제14회 은정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된 단체와 개인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입·중·안내

1 입중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중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중정 홍산 현불
중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 (WBOA)

불교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중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중도님을 모집합니다.

